

## 세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진실히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은 울며 통곡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즈음에는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기를 낳으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진통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그 날에는 여러분이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히 진실히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청하지 않았습니까. 청하시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한 16,20-24)

## 강생의 신비

내가 사제로 서품될 당시 많은 고심 끝에 연필로 그린 한 송이의 장미꽃을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요한 16.20)라는 성서 말씀에 담아 서품기념 상본으로 만들었다.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나의 하느님 체험이 담긴 말씀을 선택했고, 그 체험이 풍겨내는 이미지를 ‘한 송이 장미꽃’에 담아 상본으로 만든 것이었다. 나에게는 이제 막 피어나려는 꽃망울에 담긴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설명해 준다. 이 이미지에는 아픔 속에서 희망으로 피어오르는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다. 희망은 오히려 희망적이지 못한 어두운 상황에서 피어오를 때 더욱 그리스도교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강생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희망으로 오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표현한다. 이 신비에는 엄청난 하느님의 겸손이 담겨 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름잡으시는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굴레 속으로 뛰어드시는 겸손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임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죄가 저질러 놓은 엄청난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을 위로하시며, 그 비참함에서 인간을 구해주신다. 하느님께서서는 높은 옥좌에 앉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간의 굴레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더불어 나누시고 자 오신 겸손하신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

심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겸손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기비하(kenosis)에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배경으로 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창세 3.15) 하는 말씀에는 인류의 원수인 죄의 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결정적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구약성서에는 인간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노력이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구원역사의 관점이 성찬기도 제4양식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주께서 당신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우주를 돌보게 하시고, 다만 창조주를 섬기며 모든 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인간이 순종치 아니하여 주의 사랑을 잃었어도, 죽음의 그늘 아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주를 도로 찾아 얻게 하셨나이다. 또한 여러 번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예언자들로써 사람들을 가르치시어, 구원을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성부는 이같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정하신 때가 되자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나이다.”

### 계속되는 ‘부르심과 응답’의 역사

하느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인물들을 당신의 구원사업에

끌어들이신다. 구원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지 결코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느님의 구원사업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물들과 양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와 역사의 전통 안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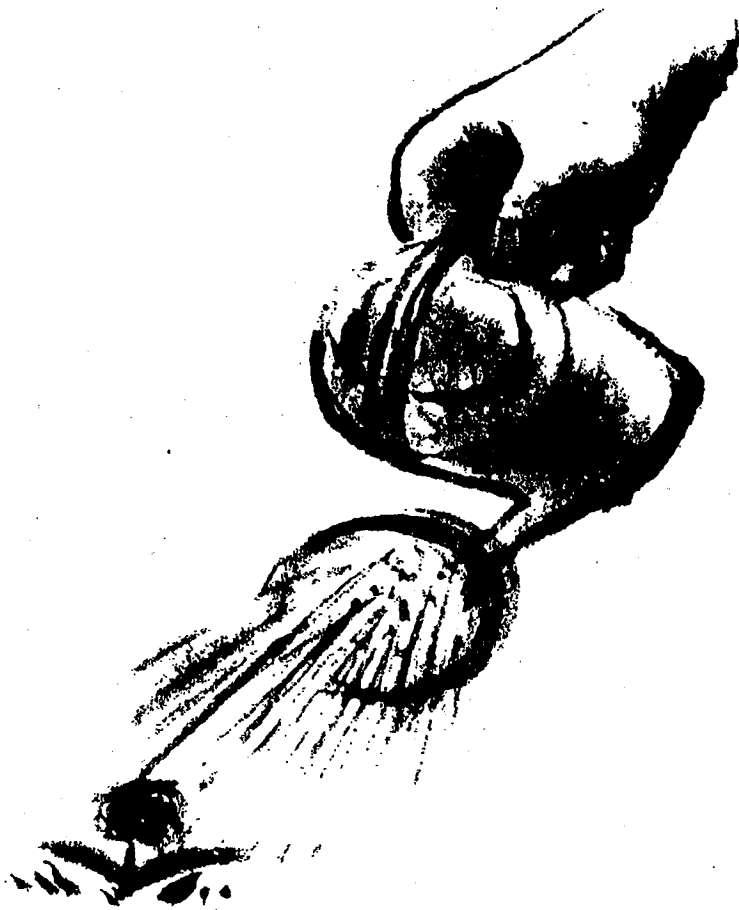
그렇기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업에 기꺼이 삶을 바쳐 동참하고자 하는 관대한 영혼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성서에서 자주 보게 된다. 구원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인간의 관대하고도 자유로운 응답 안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의 역동성이 이루는 구원사건에는 늘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서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천사들이나 하느님과 특별히 가까운 통교를 이루는 예언자들과 같은 종교적으로 특출한 인물들이 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 강생사건에 개입되는 인물들은 추상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즈가리야,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요한, 가브리엘 천사 등 아주 구체적인 인물들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틀은 구원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으키는 내적 회심을 통해 그 역동적 힘을 이끌어낸다.

어느 면에서 보면 성서에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반이 엮여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성서에 기록·보고되어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르심과 응답'의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 우리의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묘미는 순탄한

생활에 있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극복, 즉 사랑을 향한 자기 극복에 있다는 것을 새삼 배우게 된다. 은총 안에서 성숙하는 영성생활의 여정은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점점 더 깊이 우리 각자의 존재의 신비, 즉 온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에 기초되었음을,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은 가리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 앞에 펼쳐야 하는 것임을, 타인 안에 현존하는 죄스러움 역시 부드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죄인들의 모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창조, 새로운 관계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애써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 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희망이 완성됨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하느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신앙, 이것이 바로 은총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느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늘 계시 사건이다. 그리고 어떠한 양상이든지 간에 인간이 지니는 모든 체험은 섭리적이며 강생적인 체험으로서 계시적 특징을 지닌다. 우리의 체험이 섭리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일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신앙의 안목을 반영한다. 일상의 체험이 지니는 강생적 특징은 우리를 보살피 주시는 하느님께서 그 모든 체험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와 함



께 머물러 주신다는 의미이다. 또 우리의 체험이 계시적이라는 뜻은 그 체험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것들이기에, 그 안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참다운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창조의 손길로 온 우주 만물을 지어내셨고, 그 안에 특별한 위치를 배려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다다르면, 아주 거칠고도 역세게 펼쳐가는 죄의 번식력 앞에서 오히려 지극히 조그마한 한 인물

을 단순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길고도 먼 준비를 시작하시는 하느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감지하게 된다.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서서히 준비시키시는 모습은 오히려 하느님의 인내하심과 겸손하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당신 스스로 나자렛의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 단순함을 만나게 된다. 특별히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 이러한 하느님의 겸손과 단순함은 인류 전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일치로 바탕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당신께서 이루시는 구원사업에 투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루가복음에 나오는 성모영보 장면은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수용성을 놀랍게 묘사한다. 성모께서는 내적 자유로움을 누리시는 가운데 하느님의 초대를 향한 완전한 개방성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마리아의 자궁의 이미지에서 극대화된다. 이 안에 창조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 1.1).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실 터이니,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당신을 감싸주실 것입니다”(루가 1.35).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는 어둠이라는 세상의 모든 상처가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의 불꽃인 생명의 빛에 의해 감싸여지는 이미지이다. 고요하고 적막한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닫혀진 마음 속에서 어둠은 지독한 혼돈으로 남아 있지만, 개방되고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어둠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불림받고 있다. 예수님을 탄생시켜 세상에 구세주를 전해 주시는 마리아의 자궁은 그분께서 지니신 관대하고 완전한 개방성을 의미하기에, 우리 안에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셔야 하실 분을 예고한다. 당신의 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엘리사벳에게 가져가시는 마리아의 모습은 또다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타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성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성서를 지니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체험의 원천이며 동시에 그 체험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척도임을 가르친다. "교회는 성전(聖傳)과 함께 성경을 자기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늘 간직하고 있다.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모든 시대를 위하여 단 한 번 기록된 것으로서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변치 않게 전하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 가운데 성령의 말소리를 반영시킨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교 자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힘으로 자라고 지배를 받아

야 한다”(계시현장 21항).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은 성서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성서의 객관적인 계시진리를 통해 변화되어야 하며, 성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뜨거운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뵈도록 촉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더불어 써 가는 구원역사의 한 장으로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다. 현재 안에서 과거와 미래가 새롭게 태어나는 신비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예표하는 희망의 탄생이다. 성서를 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생활 속에서 영성생활은 진정으로 성숙해 간다. 한 번 마음먹어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성서를 읽고 기도하는 자그마한 일에서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

## 묵상 성구

- |             |                                       |
|-------------|---------------------------------------|
| 요한 16,20-24 |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
| 이사 7,10-15  |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 주시리니, 처녀가 잉             |

- 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이사 11,1-9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헛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 루가 1,5-25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지니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 루가 1,26-45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마태 1,18-24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 성찰

1. 나의 고유한 하느님 체험을 담고 있기에 그분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묘사해 보십시오.
2. 나는 일상에서 나와 더불어 머무시는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한복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 강생은 아픔 속에서 새로이 자라나는 희망의 상징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말씀이) 참된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

정녕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서 거처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외아들다운 영광이라

그분은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셨다.

.....

과연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사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유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품안에 계시는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이 알려 주셨다.

(요한 1,1-5.9.14.16-18)

## 희망을 통해 묵상하는 강생의 신비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교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희망'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만큼 분명하게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드러내 주는 것은 없다. 물론 어떤 이는 '고통'이라는 언어 안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특징적으로 담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쁨'이라는 언어로 그 가르침의 핵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신학적으로 무엇이 더 정확하고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삶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서로 다른 양상이 서로 다른 영성적 특징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뿐이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히 '희망'이라는 언어에 담긴 상징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이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희망은 바로 기도의 언어이다.

희망은 하느님에 의해 심어진 넓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끔 하느님의 마음으로 주위 세상을 바라보라는 충고를 들곤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넓은 마음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 강생의 신비에는 자비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희망이라는 언어를 통하여 묵상하는 강생의 신비는 놀라우신 하느님의 겸손을 드러내 준다.

성 이나시오 로올라는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강생의 신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묵상하라고 제시하신다. 즉 천주성삼께서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내려다 보시며, 특별히 천

주 성자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시는지 묵상하도록 제시한다. 서로 다른 관습과 사고방식으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며,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어떤 이는 새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이제 죽는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의 의지를 다지시며 영원 속에서 인간이 되시기를 작정하신다(「영신수련」, 102-108 참고).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세상의 어둠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강생의 신비에는 하느님의 겸손이 담겨 있다.

세상의 어두움은 단지 그저 어두움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에 의해서 희망이 심겨져야만 하는 자리이다. 하느님께서 심으시는 희망은 늘 가려져 있다. 이것은 마치 진흙 구덩이의 썩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연꽃이 지나는 희망의 상징과 같다. 희망은 늘 아픔 속에서만 그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아픔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희망도 희망으로서의 본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희망에 거름 역할을 해주고 밑바탕이 되어 주는 것은 인간의 상처입은 실존이며 죄스런 인간 공동체의 실존이다. 죄스럽고 어둡고 절망적인 인간 실존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느님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온갖 불경과 불의에 가득 찬 인간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알고서도 (그분께) 하느님으로서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네 (허튼) 생각들로 허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지혜있는 자들이로라 자처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고 썩어 없어질 수 없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날짐승들과 네발짐승들과 길짐승들의 형상을 닮은 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그들을 더러움에 부치시어 자기네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도록 버려 두셨습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었고 조물주 대신 피조물을 위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로마 1,21-25).

오직 기도하는 마음만이 이러한 인간의 불의한 행동과 진리를 가로막는 불순종의 죄스러움이 저질러 놓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발견토록 해준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말씀의 자리는 희망이 심어지는 자리

하느님께서서는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 성서의 관점에 의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의지에 따라 영원으로부터 인간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 역사를 지으시고 주름잡으시는 하느님께서 스스로 인간 역사 안에 들어 오시고 시간과 공간의 굴레 속으로 당신 자신을 굴복시킨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은 일차적으로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느님께서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어내시며 그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 안에서 삼라만상과 더불어 함께 계시며 역사를 지으시고 이끄신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내 안에 머무시오……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한 15,4-5)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그분께서는 빛과 어둠의 갈등 속에서 빛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율법과 예언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참삶의 길을 가르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말씀의 자리를 준비해 오셨다.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한다. 성서의 이야기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느님 말씀의 자리를 세상에 마련토록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말씀의 봉사자들이다. 이들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눔으로써 사람들의 아픔 속에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희망이 심어져야 할 필요성을 간파할 수 있고, 이들의 헌신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은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다.

말씀의 자리란 정의와 성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희망이 심어지는 자리로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자리를 의미한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시기에 “당신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요한 1,18)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말씀하신다. 말씀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으로서 강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이름과 성격을 지닌 인간을 부르시며 그의 자유로운 협력을 구하신다.

### 그리스도인, 희망하는 존재로서의 실존

하느님의 현존은 일치를 이루시는 성사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우리를 서로 일치시키시고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키신다. 구원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강생의 신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모든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이른다. 하느님의 구원의지에 자신의 삶

전부를 온전히 바치시며 절대적으로 순명하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는 그 절정에 다다른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  
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갈라 1.4).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지닌 구원적  
의미는 나를 포함한 전 인류 공동체를 죄의 굴레에서 건지셨  
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희망의 의미  
이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바로 희망하는 존재로서의 실존  
이다. 모든 인류는 하느님 안에서 궁극적인 완성을 희망한  
다.

구원이란 바로 희망을 발견하는 체험이며, 궁극적으로 그  
희망의 의미를 알려준 대상을 향하여 전폭적으로 투신하도  
록 이끌어 준다. 나는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이를 위  
하여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희망과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며, 그러한 용  
서와 사랑은 내 가슴 속에 희망의 싹을 마련하여 나의 삶 전  
체를 당신을 향하여 투신하도록 이끌어 준다. 용서하는 사랑  
은 투신을 부른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투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태  
는 바로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자리이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마련하는 자리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자리잡아야 하는 참다운 희망을

성 바울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신다.

“이 때문에 나는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당신 영광의 부요함을 따라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이 힘차게 내적 인간으로 굳세어지게 해주시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에 뿌리를 박고 기초를 두어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신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그리하여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보게 되기를 빕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 위함입니다”(에페 3,14-19).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완성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사는 삶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선행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혜이며,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기도 하다. 희망하는 인간만이 하느님께 자유로운 응답을 드릴 수 있다. 오직 희망을 지닌 인간만이 아픔 속에 희망을 심을 수 있고, 그 아픔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하느님의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 묵상 성구

- 요한 1,1-18      정녕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서 거  
                         처하셨다.
- 히브 1,1-9      하느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  
                         셧습니다.
- 디도 3,4-7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부히 부어  
                         주셨습니다.
- 에페 3,14-19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신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그리하여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  
                         랑을 알아보게 되기를 빕니다.
- 디도 2,11-14      과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골로 1,24-29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분을 알립니다. 그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  
                         한 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 성찰

1.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희망을 발견합니까? 죄스럽고 어지러운 삶의 이리저리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나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옵니까?
2. 인간이 되어 오시는 영원하신 말씀의 신비, 즉 강생의 신비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는 어떻게 강생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